

우리 시대 세상의 접근법 ‘마리아의 방법으로’



김경남 크리스티나

신앙이란 소극적이 아닌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이다.

샤미나드 신부님은 매사에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시대의 상황에 대처했고 그런 시대 상황의 대처 속에서 하느님의 현존하심을 체득하곤 하였다. 마치 마리아가 주변의 상황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며 활동적으로 대처했던 것처럼...

마리아니스트의 이상과 비전은 하느님의 성취가 이 세상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느님의 성취가 세상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해 새로운 사고, 새로운 사명의식으로 세상 안에 존재해야 한다. 마리아가 세상과 소통한 특별한 방법 즉, 경청, 교육자, 화해(용서), 연대성, 심사숙고 등등의 마리아의 방법은 아주 적극적이며 활동적인 선교사로서 마리아니스트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샤미나드 신부님은 말씀하신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명, 새로운 장소에서 ‘마리아의 방법으로’ 세상 안으로 들어가 하느님의 사명을 이루어 내라고...

김경남 크리스티나

서울 MLC 회장

특집 - 서울 MLC

- 함께 하는 마리아니스트 -

열려 있는 공동체, 매력적인 공동체 만들기

- 공동체 -

서울 마리아니스트 평신도 공동체의 2019년의 생활목표는 ‘함께 하는 마리아니스트 - 열려 있는 공동체, 매력적인 공동체 만들기’로 정하였다.

서울의 12개의 공동체는 이 생활 목표 안에서 세계 총회의 도전과제를 실천해 갈 공동체의 활동 계획을 세웠다. 기도생활(매일 바쳐야하는 마리아니스트 의무기도), 매월 첫째 주 일요일의 월레미사와 초대 공동체 나눔, 영적 성장을 위한 공동체별 영성 나눔(2019년 예루살렘에서 서울까지 한마음 한뜻 마리아니스트 공동체/Andre Fetis지음), 마리아니스트 가족 행사에 참여, 피정 등은 모든 공동체의 활동들이다. 올해는 특히 공동체별 사도직 활동 개발을 강조하였다. 보육원 아이들을 위한 기부와 방문, 아프리카 후원을 기부, 음악 밴드 활동 봉사, 군인들에게 간식 만들어 주기 등등 공동체별 사도직 활동을 개발 · 실천해 가고 있다.



군인간식 만들어주기
(마들렌 및 프랑켈레옹 공동체)



전체 MLC가 함께 한 부활 전야 미사

- 양성 -

제 7차 총회의 도전과제 중 하나인 ‘마리아니스트 양성’은 마리아니스트 카리스마와 리더쉽을 포함하는 내용(10개의 주제)으로 구성하여 평신도 에니메이터(4명)들이 양성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2018년 17명이 양성 교육을 받고 마리아니스트로 봉헌하였으며, 현재 9명의 청원자들이 마리아니스트 양성 교육을 받고 있다.



평신도 양성교육 (이진봉 세바스찬) 및 봉헌식

- 도전과 과제 -

그러나 여전히 젊은이들에게 다가가고 매력을 주는 마리아니스트적인 것의 활동은 도전이자 과제로 남아있다.

주님, 예수님과 성모님과 함께 길을 나서며 당신께서 세상을 위하여 마련하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눈과 마음과 손으로 당신의 사명에 협조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소서. 아멘.

자세한 정보는 다음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김경남 크리스티나

모바일: 010-8469-1025

이메일: Kpde6251@hanmail.net